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

— (1958~1989)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金美子

目 次	
I. 서언	2)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II. 1. 년대별 분석	3) 특수대학원 학위논문
2. 시대별 분석	4) 박사학위 논문
1) 학술지 발표 논문	III. 결론

I. 서언

본 연구는 1958년~1989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복식사 분야의 연구와 석·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선행 연구는 박순희의 “의류학 연구 논문의 분야별 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와 홍혜숙의 “한국복식관계 문헌 해제목록”(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5)와 이경남의 “한국복식의 연구 동향”(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1984)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술대학, 산업미술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대 범위는 상대(삼국시대)에서 현대까지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 목록에 있는 석·박사학위 논문과 각 대학 및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출판물 총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제외되었다. 간혹 누락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이 있어 필자가 아는 한 첨가하였으나 빠진 논문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 방법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석·박사학위 논문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논문도 많았고, 학위논문의 경향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따로

분석하였다.

편의상 일반대학원(의류학 전공)의 석·박사학위 논문은 일반대학원 논문으로, 미술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은 특수대학원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1. 년대별 분석(표 참조)

1960년대 논문은 총 44건으로 학술지 논문 36편, 일반대학원 논문은 4편이고, 특수대학원 논문 4편이 있다.

1970년대 논문은 총 231편으로 학술지 논문 143편, 일반대학원 48편, 특수대학원 40편이다.

1980년대 논문은 총 441편으로 학술지 논문 218편, 일반대학원 119편, 특수대학원 104편으로 점점 증가되었다.

2. 시대별 분석

1) 학술지 논문 시대별 분석

유희경교수의 논문이 학술지에 처음 발표된 것은 1958년이므로 이후 1989년까지의 논문을 10년 단위로 묶어 고찰한다. 발표된 논문 369편을 상대시대, 고려시대, 고려와 조선시대, 개화기와 그 이후 시대 전반, 현대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상대시대

상대시대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합한

〈표 1〉 년도별 시대별 논문 편수 (박사학위 제외)

	1960				1970				1980				계			
	학술지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소계	학술지	일반대	특수 대학원	소계	학술지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소계	학술지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소계
상대	4			4	14	2	3	19	23	2	9	34	41	4	12	57
고려					5	1		6	4	4		8	8	5		13
삼국 고려	2			2	1			1		1		1	3	1		4
고려 조선	1			1	5	3		8	6	6		12	12	9		21
조선	17	1	3	21	67	16	21	104	85	49	55	189	169	66	79	314
개화기					7	3		10	11	6		17	18	9		27
시대전반	10	2	1	13	26	18	10	54	48	38	12	98	84	58	23	165
현대	2	1		3	8	2	4	14	16	8	25	49	26	11	29	66
주변국가					10	3	2	15	25	5	3	33	35	8	5	48
계	36	4	4	44	143	48	40	231	218	119	104	441	396	171	148	715

시기로 발표된 논문은 총 41 편이다.

1960년대의 의복에 관한 논문은 3편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 고려 서민여인의 복식, 우리복식의 기본이며 고구려 관모에 관한 연구 1편이 있다.

1970년대 삼국시대 의복에 관한 논문은 백제 복식, 고구려 복식, 고구려 고분 벽화 복식, 삼국시대 복식이고 삼국 장신구 논문 2편, 부녀수식의 양식, 미혼남녀 복장의 장식, 고대직물(직물, 염직물 중심) 가야의 관모, 총 10편이며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논문은 4편으로 고(袴), 여자 저고리, 흥덕왕 복식금제의 복식, 박산문양에 관한 논문이다.

1980년대의 의복에 관한 논문은 7편으로 치마, 갑주, 고분벽화에 나타난 남녀 복식, 덕흥리 고분벽화 복식, 무용총 삼실총 사신총 각저총 벽화 복식, 삼국시대 유고에 나타난 호복적 특성, 통일 신라시대의 용강동고분 출토 복식이며, 선사시대의 우리 복식에 관한 논문이 있다. 관모에 관한 것은 4편으로 백제관모, 조우관(鳥羽冠), 수지형입화식(樹枝形立華飾)의 형식 분류, 통일신라 관모와 장신구 1편이 있다.

직물은 견직물 2편, 고대 직물의 문헌적 연구, 방추차에 관한 연구등 4편이고 미의식(美意識), 벽화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성, 고대복식의 선(襷), 사회

계층과 의복 형태, 황성동 고분 출토 토용의 복식사적(服飾史的) 의미, 상대의 노부(鹵簿) 제도등 6편의 논문이 있다.

복식의 형태나 문헌적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었고 미학,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응용한 연구가 늘어났다.

②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논문은 8편으로 60년대의 논문은 없고 70년대는 고려도경의 복식, 목우상의 복식, 고려 복식에 미친 중국복식의 영향, 관모, 장신구에 관한 연구 총 5편이다. 80년대는 문수사 유물포와 직물에 관한 연구 위장총관의 복식(범가위장중심) 고려직물 연구 총 3편과 상대에서 고려까지의 대마, 저마의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가 1편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의 논문은 3편으로 60년대의 복색, 한국복식의 문화사적연구와 70년대 여복 변천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같이 고려에 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연구자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③ 고려와 조선

고려와 조선에 관한 연구는 12편으로 60년대는 면복에 관한 연구 1편, 70년대는 면복 3편, 심의, 복두, 공복에 관한 연구,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80년대는 직령, 첩리 3편, 공복, 면직물이 한국복식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6편이 있다.

④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논문은 169편으로 가장 많다.

60년대는 17편으로 의복 논문은 이조전기 복식과 여인복식, 중후기 여복 구조(자료제시), 후기 비빈의 사절복식 의차, 상방제도 중심 여복, 단령, 백관복 2편이 있다. 이 외에 이조복식, 이조복색, 의료 생산, 복식 금제 2편, 남자 관모 시말, 혜원 풍속도에서 본 우리 옷의 멋, 민화에 보이는 무의에 관한 연구가 있다.

70년대는 67편이며, 의복 전반에 관한 연구는 조선 일반복식, 유물로 본 중기의복, 임란전후 의복(출토 유물중심), 이조예복 2편, 가례도감의례의 복식, 출토조선유의를 있다. 여자 의복은 이조 여인복, 여자에복 2편, 당의, 가례도감 中의 궁중법복(적의), 원삼 2편, 활옷, 비빈복, 丹衫, 법복과 의대(노의장삼), 중후기 궁중복식, 궁중복장, 간택복식(혜경궁 홍씨 중심)이 있고, 남자 의복은 곤룡포의 변천, 형태, 원유관 강사포, 금관조복, 도포, 단령, 관리 常服, 관복 2편, 구군복, 皮甲, 두정갑, 두석린갑주, 별감복, 사령과 나장복, 관노복, 지방관아복식(국문학 작품 중심)이 있고, 四禮에 관한 것으로는 궁중제례, 사례복식, 혼례복, 습의 유래와 제도, 수의 궁중喪服제도, 염습고가 있다. 수식은 가채, 여인의 수식, 여인 난모, 내외용 쓰개류, 문무관 흉배 2편, 후기 관모복식, 남자 관모, 사모와 장신구로는 궁중패물 받기, 여성패물(유물중심), 남자 장신구에 관한 연구가 있다. 색에 관해서는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 2편, 조선복색원류고와 문양은 직물문양, 복식문양, 복식운문이 있으며, 그외에 금박, 자수, 채단금제, 규합총서해설(縫袵則, 염색 洗衣편)증보산림경제 가정편 1, 2, 3에 관한 연구가 있다.

80년대는 85편으로 남자 의복에 관한 연구는 면복, 동가노부 복식, 의례도에 나타난 궁중복식, 정조 현릉원 행차시의 궁중의례복, 왕의소렴 대령 재궁의 대, 통신사 복식, 통신사와 수행원복식, 구군복, 군복, 정충신 장군과 충렬사 갑주, 해외 유물 갑주, 관례복, 혼례복(士婚禮), 김덕령 장군 의복, 포, 도포, 심의, 김홍도 평생도의 옷전반, 혜원 민속화에서 본 일반복, 기사계첩에 나타난 복식, 동래정씨 출토

유물, 문익신묘 출토복식, 강진김씨 문중유물복식, 탐릉군 수의, 사명당 장삼, 악복, 궁중악인복, 악인복, 궁중남무복, 무복에 관한 연구가 있고, 여자 의복은, 왕비 법복(적의) 2편, 적의 제도 변천, 비빈 장삼과 보로, 후기 가례복식, 가례도감의례의 반차도 복식, 예복, 원삼, 활옷, 당의, 저고리 깃, 여자 저고리 소매, 궁중여무복, 기녀복이 있다. 수식에 관하여는 남자 관모, 사모, 巾制, 흉배, 모, 흉배제도, 후수, 과대, 足衣, 부녀두발 양식, 여자 머리 모양 및 머리 빗는 법, 여인 쓰개가 있고, 조선시대 직물, 조선시대 염료, 복색 및 염료 2편, 궁중의복 염색, 복식문양, 12장문, 노부 의례, 관복색, 태종의 복식정책, 백색금제, 백의금령, 복색금제, 여성 복식 금제, 조선중기 복식, 단령, 창 의 봉제법, 착의법, 후기여성복식과 개량논의(박규수 내복편) 저고리 구성원리와 심의 비교, 여자 의복의 변천에 대한 수치적 연구, 거가잡복고를 통해 본 박규수의 복식관, 조선중기의 복식 변천에 대한 요인 분석, 기녀복식의 사치와 그 영향, 도복의 풍속사적 고찰, 사회계층과 의복흥미도(복식금제 中心), 남자 복식, 의식구조 연구, 노리개에 반영된 여성의 가치관, 머리모양에 표현된 미의식, 옷맵시에 나타난 멋, 노리개에 나타난 상징성이 있다.

⑤ 개화기

개화기에 관한 논문은 18편으로 1960년대는 없고, 1970년대에는 여자 한복 형태 변화, 저고리, 육군복장제도, 군복장, 한국군인복식, 문관복, 皇族用補에 관한 연구 7편이 있다.

1980년대의 논문은 11편으로 고종황제의 대례복과 일본에 남아 있는 영친왕가(英親王家)의 복식, 군복양식 변천, 고종시대 무관복제 경부복식, 경찰관복, 경무청 관리복장, 商人 복장에 관한 연구가 있고, 개화기 복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힌 것과 개화기 복식에 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있다.

⑥ 현대

현대에 관한 논문은 26편으로 60년대는 한복 치마 제작과 여자 저고리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2편이 있고, 70년대는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한복 속치마 제작, 남자 저고리 제작 2편, 남자 바지 제작, 한복 치수 설정 및 한복 착용실태, 제주도

혼속 2편이다.

80년대는 16편으로 한복의 원형제도에 관한 연구가 8편으로 많으며 컴퓨터도 이용되었다.

여자 모자, 한복의 황금비 분석을 한 연구와 버선 원형, 걸치마와 속치마의 조끼허리 원형 연구, 치마 허리의 압력에 관한 것, 치마허리의 치수가 인체의 압력과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고, 여자 저고리의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2편과 컴퓨터에 의한 여자 두루마기, 여자 마고자, 남자 바지의 원형제도가 연구되었다. 또한 제주도갈옷의 실태조사와 응용방안, 갈옷(澁柿梁衣)의 특성연구 1,2와 대구지방의 여대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치관과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유행 및 한복에 관한 연구가 있고 북방계 복식에서의 관심과 복식사 교육에 관한 논문이 있다.

⑦ 시대전반

시대전반에 관한 연구는 73편으로 60년대는 10편인데 한복의 역사적 고찰 2편, 한국복식의 시대적 개관, 문헌에 나타난 여자 복식, 여자 저고리, 혼례복, 편복포이고, 수식은 관모, 여자 계양, 여자 수식에 관한 것이다.

70년대는 26편으로 의복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복식의 역사적 고찰, 민속무의 복식, 개주와 군복과 용복에 관해서, 포, 두루마기, 무 없고 옆트인 포, 고(袴), 적의 2편, 여복포, 기녀복장, 여자 저고리 2편, 치마, 배자, 불교복식에 관한 연구가 있고, 수식은 여인의 두발과 장식품,笠, 대, 버선과 민서편복포의 옷깃, 한국 고유문양에 관한 연구가 있고, 기타 연구로 두루마기 명칭, 복식금제, 衣변에 나타난 옷의 구조, 한국복식 고종의 재검토가 있다.

80년대는 48편으로 의복에 관한 연구는 단령, 적의, 조복, 바지 2편, 저고리 2편, 치마, 군복, 가사색을 중심으로 한 女法衣, 한복 소매, 옷깃과 옷섶, 농악복식, 도교복식, 계례복식 총 15편이다.

수식은 학생모, 입자(笠子), 후수, 신 3편, 여자발양, 나막신, 대, 폐슬에 관한 연구 10편이 있다.

직물의 역사적 고찰, 귀문, 모란문, 용문 식물에 의한 갈색염, 황염, 자수 3편, 백색논의, 전통복색과 염채에 관한 연구 등 11편이 있다.

이외에 한복의 특징에 관한 문헌 고찰, 한국 고유복식의 변천원칙, 의생활의 전통양식, 한복의 전통

적 특성, 치마 저고리 차림새, 화장 풍속사, 장신구의 사치금제, 한복에 나타난 襪, 한국 백의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인, 한국복식의 연구동향등 12편이 있다.

⑧ 주변국가

중국과 일본에 관한 연구와 중국, 일본, 서역, 고대 동서양과 한국과의 비교 논문은 35편으로 60년대는 없다. 70년대는 비교논문 9편과 중국단령에 관한 연구 1편이 있다. 한대복식과 한복의 교류관계, 중국영향을 통해 본 한국복식, 신라장신구와 서역과의 고찰, 고대 동서양 上衣비교, 일본 고대 및 근대복식과 우리 복식, 고구려 벽화 복식과 고송총 벽화 복식, 백제복식(일본 고대사에 미친 백제문화), 일본 기마민족 정복설과 복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80년대는 25편으로 70년대보다 증가하였다. 중국의 공복, 단령, 고습(袴褶), 바지의 形制, 귀주묘족(貴州苗族)의 복식미, 福州南宋黃昇墓 출토복식, 동양의 대(I), 청대의 보(補), 고대 여자 관복(상~진), 공자의 의식주, 한대 잠기상과 신라토우 비교, 고려불화(십왕도)를 통해 본 고려와 중국의 단령비교, 조선과 중국의 冠과 巾의 비교, 한국 중국의 여성복식 비교, 조선과 중국의 문관 흉배양식 비교, 중국복식이 삼국시대 복식에 미친 영향, 우리 복식이 중국복식에 미친 영향, 중국과 일본복식의 트임, 일본의 고대복식, 高松籠 벽화 인물의 복식에 관한 연구와 한일 고대복식, 한국복식과 일본 정창원 기악복식과의 비교논문이 있다.

2) 일반대학원 논문분석

편의상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일반대학원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1965년에 처음 나왔는데 1970년까지 4편이 나왔고 71년부터 1980년까지는 48편이 나왔으며, 81년부터 89년까지는 119으로 총 171편이 나왔다.

① 시대별 분석

㉠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70년대의 과대, 박산문양 연구와, 80년대의 용강동토용, 삼국사기중의 고대직물에 관한 연구이다.

삼국~고려의 연구로는 상(裳)에 관한 연구 1편이

있다.

㉠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5편의 논문이 있는데 70년대에 고려 백제 단수포의 사적고찰과 80년대 고려 불화에 나타난 단령 및 고려복식, 문수사 유물포와 직물, 고려직물에 관한 연구가 있다.

㉡ 고려와 조선

고려와 조선시대의 논문은 총 9편으로 70년대 심의, 난삼, 철릭에 관한 연구와 80년대 공복, 첩리 2편, 면복색, 長衣, 하회별신굿 탈놀이 복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학위논문은 66편인데 60년대에 이조복식 소고가 발표되었고, 70년대의 16편의 논문중 의복에 관해서는 영·정조시대 복식, 백관복, 소의(거가잡복고 중심), 왕세자 가례 연구, 혼례복, 오복제도(국홀복), 습의의 유래와 제도, 喪服이 있고, 수식에 관해서는 대, 흉배, 문양 중심 자수 노리개, 금박, 자수, 복식문양(자수와 금박)이 있으며, 기타 연구로 복식금제, 관복색에 관한 연구가 있다.

80년대는 49편의 논문 중 의복에 관한 연구가 20편으로 면복(국장도감의례복완도설 중심), 왕족관포, 문관복, 군복, 음복, 갑옷, 답호, 도포 2편, 왕릉문인석상복식, 유생복, 과거제도에 관련된 유생복, 악인복(악학궤범), 士家의 喪服, 왕비법복, 현종 가례복식, 평안감사 환영도복식, 춘향전 복식, 통과의례복식(평생도 병풍 중심), 감로탕화에 표현된 복식 유형과 상징성이 발표되었다.

수식에 관한 연구는 남자 편복 관모, 망건식, 내외용 쓰개류 2편, 면사, 나막신, 신, 포백척, 침구, 노리개, 노리개의 상징성 총 11편이고, 직물과 문양과 염색에 관해서는 출토 면직물의 물성, 조선 직물, 전통 염색법, 염색과 전리도, 홍색계 첩리색 염색, 면과 견의 초목염, 문직물 문양, 법복의 직물과 문양, 의복 문양, 복식 문양, 복식 수문양, 복식에 표현된 금박 문양 총 12편이며 그외 복색금제, 춘향전에 표현된 미의식, 초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의생활 규범, 석존제예복식, 가례도감의 반차도의 구도적 연구 6편이 있다.

㉣ 개화기

개화기에 관한 연구는 9편으로 70년대는 한국복

식, 문관복, 한복에 반영된 심미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80년대는 남자 복식, 근대이후 혼례복, 창덕궁 소장 가례반차도복식, 직물,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요인, 양복도입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 현대

현대에 관한 연구는 11편으로 60년대는 한복의 복장미, 70년대는 한복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부담, 제주도 해녀복과 농민복이 있고 80년대는 실물실측을 통한 여자 저고리 치수, 저고리 깃의 인간공학적 연구, 치마말기 압력과 치마허리 치수에 따른 생리기능 변천, 여자 한복의 의복압, 조선 중기 여자 저고리 복원과 활용방안, 상례복 착용 실태, 사례편람의 혼례복과 현행 혼례복 비교, 한국복식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 시대전반

시대전반에 관한 학위논문은 58편으로 60년대는 신, 문헌상에 나타난 복식과 짧은 저고리가 발표되었고, 70년대는 한복 변천, 여자복식, 포제, 여자 저고리, 가사 2편, 민속무복식, 입(笠)제, 대, 과대, 족두리, 문양과 자수, 복식수, 칠보문양, 의상문양, 백의고, 복식의 미적특성, 바느질 도구 등 총 18편이 발표되었다.

80년대는 38편이 발표되었는데 현단복, 창의, 배자의 양식 변천, 단수의, 갑주, 법복, 여자 혼례복, 저고리, 여성 친의류, 법의, 무속복식 2편, 보살상복식, 복두, 동자쌍계, 나을, 수발, 이식, 신, 수, 불교자수, 직물문양, 식물문양, 국화문, 모란문, 십장생문, 자색, 자연염료와 염색, 염색史, 바느질 용구 2편, 여성 복식의 특성과 의미, 笠에 나타난 傘(雨傘)의 원류, 백의 풍속, 한복의 트임, 의복의 여밈, 착의법, 치마저고리의 소재와 색이 있다.

㉦ 주변국가 및 비교연구

주변 국가와의 비교 연구는 8편으로 70년대의 삼국시대 복장과 Rome 복장 비교, 한·일 고대 복식관계, 수·당시대 염직물에 반영된 배색과 장식에 관한 것과 80년대의 중국 돈황벽화의 복식, 중국 고대 견직물(발상과 발전 중심), 일본 정창원의 오녀배자, 고대 동양 복색제도 비교, 수하미인도의 계보와 복식이 있다.

③ 특수대학원 논문 분석

편의상 일반 대학원의 미술대학, 산업미술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복식사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을 특수대학원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1968년에 처음 나왔고 일반대학원 미술학석사 논문은 1969년에 처음 나왔으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1975년에 처음 나왔다.

연대별로 발표된 논문편수는 1960년대에 4편, 1970년대에 40편, 1980년대에 104편으로 총 148편이다.

시대별로 발표된 논문 편수는 조선시대 논문이 79편으로 제일 많고(53%), 현대에 관한 논문이 29편으로 다음이다. 시대별, 연대별 논문 편수는 삼국시대 논문 12편 중 70년대 3편, 80년대 9편이고 조선시대 논문 79편 중 60년대 3편, 70년대 21편, 80년대 55편이고, 시대 전반 23편 중 60년대 1편, 70년대 10편, 80년대 12편이고, 현대 29편 중 70년대 4편, 80년대 25편이고, 주변국가 5편 중 70년대 2편, 80년대 3편이다.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미술 대학원과 산업미술 대학원 논문은 비슷했고, 교육대학원 논문 주제는 의복, 수식, 문양, 직물, 염색, 기타의 순으로 일반대학원 논문과 같았다. 미술대학원 논문의 주제는 문(미술대학원 논문의 주제는 문양(27), 장신구(15), 직물(3), 염색(9), 색(4), 두식과대(8), 의복(14), 작품(7), 디자인(12), 조형성(7), 기타(19) 총 125편이다.

문양에 관한 연구는 복식, 갑주, 반질고리, 비녀, 베갯모, 직물, 주머니, 금박에 나타난 문양과 수복문, 기하문, 조류문, 용문, 당초문, 동물문 등이다.

작품(디자인)을 위한 연구는 한복선을 응용한 작품을 비롯, 와당문, 복식문, 금박문과 磚문, 단청문, 창살문, 귀걸이, 노리개, 처용무복, 기녀복, 갑옷과 관예복 장식을 이용한 디자인 및 혼례용 장신구, 족두리를 이용한 혼례모, 나막신 응용 화기(化器), 조선시대로 옮긴 무대의상 디자인의 연구가 있다.

수식에 관한 연구는 가야와 삼국시대 금속관모, 제주도 관모(말총 중심), 아동모, 여인의 난모, 내외용 쓰개류, 현대 모자, 댕기, 靴鞋공예, 보와 흥배, 대, 수저집, 바늘집, 함(의복과 관모), 목침, 수침,

수와 칠보노리개, 귀걸이, 팔찌, 반지, 비녀, 뒤꽂이, 장도, 옥과 수장신구, 초상화, 수저집, 毛, 견직물, 한대직물, 羅織, 자수병풍, 수본, 자수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색채에 관한 연구로는 복색, 염직물에 나타난 한국인의 색채감정과 조화(조선의상), 자연염료와 염색, 식물염료, 목염, 궁중의복염색, 식물염료에 의한 양모염색, 본초강목의 염색, 십장생의 현대화(남방염과 분무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의복에 관한 연구는 통신사 복식, 한양가 복식(능행과 과거차시), 군복사, 기녀복식, 농악복식, 왕릉의 석인석수, 가면극 의상, 무신도, 고구려 고분 벽화의 복식, 풍속화의 복식미, 전통혼례복 실태(서울지역), 불상가사의 주름, 신라 토우의 상징성, 현대 여성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전통성의 연구가 있다.

교육대학원 연구는 23편으로 60년대의 논문은 혼례복, 조선초 초상화의 관복이 있고, 70년대의 논문은 당의, 袴, 조선 궁중 정재, 무속복식, 복식의 사치금지, 색동, 복식관계 문헌해제목록, 개화기의 우리나라와 일본복식 비교, 이집트와 고구려 벽화의 시각형식 비교(인물화 중심)가 있다. 80년대의 논문은 승복, 喪禮服, 중기 中期 遺衣, 한국무복의 전통성(만구견택굿 중심), 노리개 2편, 耳飾과 脛飾, 복색, 용문, 노리개에 반영된 여성의 가치관, 한국과 서양 여인의 용도별 두식 비교, 고구려 벽화복식과 일본 埴輪복식 비교, 당·신라·일본의 표(裱)에 관한 논문이 있다.

④ 박사학위 논문

국내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74년으로 유희경 교수님의 '면복에 관한 연구'이다.

이후 1984년부터 1989년까지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시대별 분석은 삼국시대 4편으로 고대 한국복식의 원류, 가야지역의 장신구, 고구려 고분 벽화복식과 사회계층, 황성동 고분 출토 토용에 관한 연구가 있고, 고려·조선시대는 1편으로 '면복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조선시대는 7편으로 관례복, 영·정조시대 복식변천, 의궤도 복식, 조선후기 복식의 풍속사적 연구, 혼례의식에 관한 복식, 복장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이다. 시대 전반은 노부의위(의장, 의례복의 제도와 상징성), 한국의복의 유행과 양식, 단령, 여성 쓰개(敝面), 한국 복식 現象의 구조적 분석, 한국 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직령교임식袍, 종교복식(불교와 도교) 논문으로 8편이며, 개화기에는 2편으로 여성 양장 변천, 전통직물을 섬유학적 특성이 있으며 주변국 연구로는 중국복식에 끼친 동북아시아 민속복식 영향, 韓·中 단령의 비교가 있고 현대는 여자 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1편이 있다.

주제별로는 의복이 12편으로 제일 많고, 장신구, 쓰개, 전통색, 직물, 사회계층, 미의식, 風俗史의 연구, 의복의 유형과 양식, 원형설계, 현상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연구 각 1편과 주변국 연구 2편이 있다.

Ⅲ. 결론

이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가 1960년대는 개괄적인 복식 고찰이 많았으나, 1970년대에는 의복, 장신구, 수식등의 주제별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에는 미

학, 사회학, 풍속사적 접근 논문과 주변국가 및 일본, 중국과의 비교논문이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원형제작을 위한 치수설정 및 computer를 이용한 원형제작 논문이 증가하였다.

2. 시대는 연구자료가 제일 많은 조선시대가 가장 많았고, 시대 전반이 다음이고, 연구자료가 제일 적은 고려시대의 논문이 가장 적었다.

3. 논문제목이 같은 논문이 10여건이나 되었다. 논제를 정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 및 검토가 요구된다.

4. 연구내용은 선행연구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 적고, 중복된 것도 있었고, 재인용을 밝히지 않은 논문이 있었다. 이것은 지방과 서울, 학교와 학교사이의 정보교환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5. 주제와 전개과정은 일반대학원 논문과 교육대학원 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비슷하여 의복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미술대학원과 산업미술 대학원의 논문은 문양과 장신구류가 많았다.

6. 분석자료로 사용한 모든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밝히거나 부록으로 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지면관계로 실리지 못했음을 밝힌다.